

코로나에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잊지 않고 찾아와서 산과 들에 새싹들이 움트고 있어요. 자원관에도 봄을 알리는 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민들레 (사진출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① (민들레)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풀이에요. 꽃은 3~5월에 피고 200여 개의 낱꽃이 모여 민들레 꽃 한 송이를 이루어요. 아침에 피고 저녁이 되면 오므라드는 민들레는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머물면서 우리가 후~ 하고 불었던 하얀 씨앗이 날려요. 씨앗에 붙은 털은 바람이 불면 공중에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민들레의 종을 퍼뜨린대요.



② 냉이 (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현진오)

② (냉이) 냉이는 들이나 밭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로 향기가 좋아 이른 봄에 먹는 봄나물로 유명해요. 5~6월에는 백색의 작은 꽃이 피어요. 냉이의 잎은 땅이 맞닿은 곳에서 뿌리를 중심으로 빙 둘러 나요. 주로 땅에 누운 모양을 하고 있지요. 냉잇국을 떠올리면 우린 냉이의 뿌리를 상상할 수 있는데요. 냉이의 뿌리는 곧게 뻗은 원뿌리를 중심으로 많은 잔뿌리가 나요. 냉잇국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다고 하니 다가오는 봄날에 냉잇국 어떠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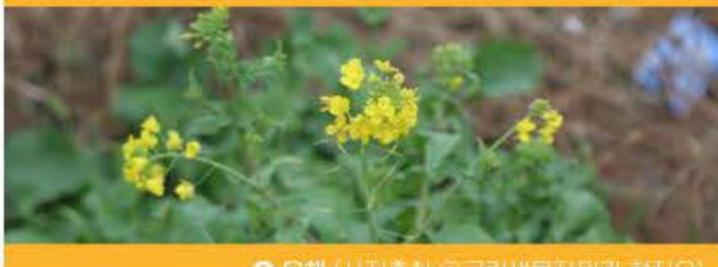
③ 개나리 (사진출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③ (개나리) 잎이 돋기 전 노란색의 꽃을 만발해 봄이 오는 소식을 전해주는 개나리! 3월 중순쯤 남쪽 지방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개나리의 학명(*Forsythia koreana*)에서 알 수 있듯이 개나리는 우리나라 특산종 나무예요. 해충과 추위에 강하고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어디서든 잘 자란답니다.



④ 벚꽃 (사진출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④ (벚꽃) 그대여~그대여~그대여~♪4월이 되면 하얀 눈꽃을 선사하는 벚나무의 벚꽃은 우리들을 늘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벚나무는 왕벚나무, 산벚나무, 개벚나무, 울릉도의 고유종인 섬벚나무 등 수십 종류가 있어요. 개화 후 금방 떨어지는 벚꽃잎과는 달리 벚나무의 목재는 치밀하고 탄력이 있어 가구 및 건축물에도 사용되어요. 특히 팔만대장경의 판은 60% 이상이 산벚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벚꽃이 만개할 때쯤에는 코로나19가 잠식되어 벚꽃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⑤ 유채 (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현진오)

⑤ (유채) 유채는 3~4월에 노란 꽃을 피워 선명하고 아름다운 노란빛 전경을 선사해 주어요. 유채는 아름다운 꽃뿐만 아니라 많은 쓰임새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름나물이란 뜻을 가진 유채의 종자에는 38~45%가량의 기름이 들어있어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유료작물로도 유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유채는 나물로도 무쳐먹기도 하는데 **피로회복과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